

<2020 국회직 채용 답안>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⑤	③	③	④	②	⑤	③	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③	④	②	③	①	②	①	③

1. <보기1>의 밑줄 친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1>

이 왕의 정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법에 의한 군역제도의 개혁과 직전법의 실시에 의한 토지제도의 혁신이었다. 보법은 군역의 평준화에 따른 국방 강화에 목적이 있었고, 직전법은 관리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대신 국가 재정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보 기 2>

- ㄱ. 상서사에서 맡고 있던 인사권을 이조와 병조에 귀속시켜 6조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 ㄴ. 6조 판서들이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를 부활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 ㄷ. 문하부의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켜 언론 기능을 강화하고 대신들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 ㄹ. 국경 지대에서 시행되던 방어체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역 중심 방어체제로 개편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1. 정답 ④

[자료 분석]

보법에 의한 군역제도의 개혁, 직전법 실시 등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이 왕’이 조선 세조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ㄴ. 세조는 6조 판서들이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6조 직제제를 부활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 ㄷ. 세조는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진관체제를 실시하여 변방 중심의 방어 체제를 전국적인 지역 중심 방어체제로 바꾸었다.

[오답 피하기]

- ㄱ. 태종은 상서사의 인사 기능을 이조와 병조에 귀속시켜 6조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 ㄹ. 태종은 간쟁을 관장하던 문하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

켜 대신들을 견제하였다.

2.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김춘추가 무릎을 꿇고 “..... 만약 폐하께서 당의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것들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 산과 바다 건너 행하는 조회도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서 군사의 출동을 허락하였다.  
 (나) 당의 군사가 와서 매소성을 공격하니, 원술이 이를 듣고 죽음으로써 지난번의 치욕을 씻고자 하였다. 드디어 힘껏 싸워서 공을 세워 상을 받았다.

- ①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
- ② 백제가 멸망하였다.
- ③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 ④ 신라에서 녹읍이 폐지되었다.
- ⑤ 고구려가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2. 정답 ②

[자료 분석]

- (가)는 648년(진덕여왕 2)에 김춘추 당에 건너가 나당 동맹을 체결한 사실을 보여준다.
- (나)는 675년(문무왕 15)에 일어난 매소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다. 675년 신라는 남침해 오던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격파하여 나·당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정답 해설]

- ② 660년(의자왕 20) 나당 연합군에 의해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가 멸망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것은 698년의 일이다.
- ③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한 것은 진흥왕 때인 562년의 일이다.
- ④ 신문왕 때에는 문무 관리에게 수조권만을 인정하는 관료전을 지급(687)하였으며, 귀족들의 녹읍을 폐지(689)하였다.
- ⑤ 고구려가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격퇴한 살수대첩은 612년의 일이다.

3.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건국과 발전 과정에서 신라의 왕호는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4세기 무렵에는 이사금이라는 칭호가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 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
- ②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주군제를 도입하였다.
- ③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았다.
- ④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여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 ⑤ 3성이 권력을 주고받던 시대가 끝나고 김씨 세습이 이루어졌다.

3. 정답 ⑤

[자료 분석]

신라에서 왕의 칭호가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뀐 시기는 4세기 무렵 내물 마립간 때이다.

[정답 해설]

- ⑤ 신라는 4세기 무렵 내물 마립간 때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고, 왕의 칭호를 이사금에서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꾸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신라에서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한 것은 6세기 법흥왕 때의 사실이다.
- ② 6세기 지증왕 때에는 정치 제도가 더욱 정비되어 국호를 사료국에서 신라로 바꾸었다. 또한 국내의 주(州)·군(郡)·현(縣)을 정하여, 지방 제도로 주군제도(州郡制度)를 실시하였다.
- ③ 6세기에 백제 성왕은 고구려의 내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신라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부분적으로 수복하였다. 그러나 진흥왕의 배신으로 신라에게 빼앗기고(553) 자신도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하였다(554).
- ④ 신라 최초의 연호(건원)가 사용된 것은 6세기 법흥왕 때이다.

4.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진년(1232년) 여름 4월 8일 처음 보현도량(普賢道場)을 결성하고 법화삼매(法華三昧)를 수행하여,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였는데, 모두 천태삼매의(天台三昧儀)를 그대로 따랐다. 오랫동안 법화참(法華懺)을 수행하고 전후에 권하여 발심시켜 이 경을 외우도록 하여 외운 자가 1000여 명이나 되었다.

- ①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②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 ③ 백련결사를 주도하였다.
- ④ 천태사교의를 저술하였다.
- ⑤ 유불일치설을 강조하였다.

4. 정답 ③

[자료 분석]

자료에 해당하는 승려는 고려 무신집권기 때 활약한 승려 요세이다. 요세가 보현도량(普賢道場)을 결성하고 전통적인 법화삼매참회(法華三昧懺悔)를 닦게 된 것은 1232년(고종 19)인 69세 되던 해였다. 이를 계기로 결사 운동이 시작되어 체계가 정비되었고, 백련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정답 해설]

- ③ 요세는 백성의 신앙적 욕구를 고려하여 강진 만덕사(백련사)에서 백련 결사를 제창하였다.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 결사 역시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고, 수선사와 양립하며 고려 후기 불교계를 이끌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의천, ② 지눌, ④ 제관, ⑤ 혜심에 대한 설명이다.

5. 다음 지문의 작가가 속한 봉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江湖(강호)에 病(병)이 깊피 竹林(독림)의 누엇더니,  
關東(관동) 八百里(팔백리)에 方面(방면)을 맞디시니,  
어와 聖恩(성은)이야 가디록 罔極(망극)하다.  
- 「관동별곡(關東別曲)」

- ① 이황과 조식의 문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다툰 김효원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 ③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고 건의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
- ④ 정여립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많은 사람들이 실각하였다.
- ⑤ 선조가 사망하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실권을 장악하였다.

5. 정답 ③

[자료 분석]

관동별곡은 1580년(선조 13) 서인 정철이 지은 가사이다. 이 작품은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제수(除授)되었을 때 원주에 부임하여 내·외·해금강(內外海金剛)과 관동팔경(關東八景)을 두루 유람하고 그 절경을 노래한 것이다. 따라서 서인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한다.

[정답 해설]

- ③ 1591년에는 서인 정철 등이 광해군을 세자로 정할 것을 주청했다가 선조의 미움을 사게 되어 피해를 입었다(건저의 사건).

[오답 피하기]

- ① 동인은 이황과 조식,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 중심으로 다수의 신진 세력이 참여하여 먼저 봉당의 형세를 이루었고, 반면에, 서인은 이이와 성혼의 문인이 가담함으로써 봉당의 모습을 갖추었다.
- ②,④ 동인에 대한 설명이다.
- ⑤ 광해군 때에는 남명 조식의 학통을 계승한 복인(대북)이 집권하여 정국을 주도하였다.

6. ㄱ~ㄹ의 '이 책'이 편찬된 순서로 옳은 것은?

ㄱ. 이 책은 단군 신화를 서술하면서 예맥, 부여, 옥저, 삼한, 삼국이 모두 단군의 후손임을 밝혀 놓았다.  
 ㄴ. 이 책은 고려의 역사를 편년체와 강목체를 결합하여 서술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강목체 사서로 평가된다.  
 ㄷ. 이 책은 고구려 건국 영웅을 소재로 서사시를 지은 것으로, 고구려 전통을 계승하려는 의식이 강조되어 있다.  
 ㄹ. 이 책은 고려 태조부터 숙종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그 가운데 국왕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 부분이 지금 전하고 있다.

- ① ㄱ - ㄷ - ㄹ - ㄴ
- ② ㄱ - ㄹ - ㄴ - ㄷ
- ③ ㄴ - ㄱ - ㄷ - ㄹ
- ④ ㄷ - ㄱ - ㄴ - ㄹ
- ⑤ ㄷ - ㄹ - ㄱ -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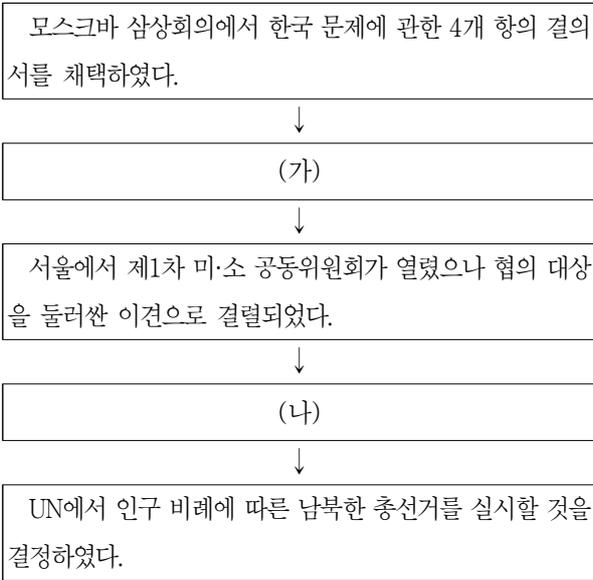
6. 정답 ④

[자료 분석]

[정답 해설]

- ㄷ.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있는 『동명왕편』(1193, 명종 23)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 ㄱ. 1287년 충렬왕 때 이승휴가 편찬한 『제왕운기』에서는 단군 신화를 서술하고, 우리 역사가 단군조선에서 시작하여, 기자와 위만으로 이어지고, 삼한을 거쳐 삼국으로 이어진 것으로 쓰고 있는데, 예맥, 부여, 옥저, 삼한, 삼국을 모두 단군의 후손으로 여기는 것이 특이하다.
- ㄴ. 충숙왕 때에는 민지가 왕명으로 『본조편년강목』을 편찬했는데, 이는 고려시대 역사를 편년체와 강목체를 결합하여 서술한 것이다. 여기서 강목체는 성리학적인 역사 서술 방식을 말하므로 이 책은 최초의 강목체 역사 서술이다.
- ㄹ. 공민왕 때 이제현은 태조에서 숙종 때까지의 역대 임금의 치적을 정리하여 『사략』을 편찬했는데, 그 속에 실린 사찬(업적 평가)만이 지금 전한다.

7. (가), (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 미군이 진주하여 북위 38도선 이남에 군정을 선포하였다.
- ② (가) - 주한 미국 육군 사령부는 국내 치안을 명분으로 남조선 국방 경비대를 창설하였다.
- ③ (가) -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 ④ (나) -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조직되어 책임비서로 김일성을 선출하였다.
- ⑤ (나) - 김구와 김규식 등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벌였다.

7. 정답 ②

[자료 분석]

첫 번째 자료는 1945년 12월에 개최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 대한 내용이다.

두 번째 자료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1946년 3월~5월)가 결렬된 사실을 보여준다.

세 번째 자료는 1947년 11월 UN 총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해설]

② 남조선 국방 경비대는 미군정하에서 창설되어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가 되었던 군사 조직으로 1946년 1월에 창설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미군이 진주하여 북위 38도선 이남에 군정을 선포한 것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이전인 1945년 9월의 일이다.

- ③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정읍 발언)한 것은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 이후인 1946년 6월의 일이다.
- ④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1945년 10월 조직되었고, 12월에 김일성이 책임비서로 선출되었다.
- ⑤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협상에 참가한 것은 1948년 4월의 일이다.

8.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 도	조 약 명	주요내용
1876	조·일 수호 조규	(가)
1876	조·일 무역 규칙	(나)
1882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다)
1882	조·미 수호통상 조약	(라)
1883	조·일 통상 장정	(마)

- ① (가) -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하였다.
- ② (나) - 일본정부에 소속된 선박의 항세를 면제하였다.
- ③ (다) - 청의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은 대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 ④ (라) - 거중조정의 원칙과 최혜국대우 조항을 규정하였다.
- ⑤ (마) - 일본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였다.

8. 정답 ⑤

[정답 해설]

①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 1876)에서는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② 조·일 무역 규칙(1876)에는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일본국 정부 소속 선박에 대한 무항세 등이 규정되었다.

③ 임오군란의 결과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에서는 청의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은 대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명기하였으며, 치외법권 등 청나라에 유리한 특권을 담고 있었다.

④ 조·미 수호통상 조약(1882)은 서양 국가와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으로 치외법권, 관세 부과, 거중조정, 최혜국 대우 등이 규정되었다.

[오답 피하기]

⑤ 조·일 통상 장정(1883)에는 관세 부과 규정, 방곡령 선포

규정(단,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고), 최혜국 대우 등이 규정되었다.

9.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은?

(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감금하고 국회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나)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적 인원 203명의 2/3에 못 미치는 135명이 찬성하였으나 사사오입의 논리를 펴 역지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 ① 이승만이 여러 우익 단체를 모아서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 ②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되었다.
- ③ 6.25 전쟁에 대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 ④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다.
- ⑤ 김일성이 연안파를 숙청하고 주체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9. 정답 ③

[자료 분석]

(가)는 1952년 7월에 있었던 발췌 개헌(1차 개헌)에 대한 내용이다.

(나)는 1954년 11월에 있었던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해설]

③ 1953년 7월 27일 휴전(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휴전 협정에서는 중립국 감독 위원회와 군사 정전 위원회, 비무장 지대 설치 등이 합의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자유당은 1951년에 창당되었다.
- ②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부통령에는 자유당의 이기붕을 제치고 장면이 당선되었다.
- ④ 이승만 정부는 1958년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평화 통일 방안을 주장하였다는 혐의로 진보당의 조봉암 등을 체포하였고, 조봉암은 이듬해 사형에 처해졌다.
- ⑤ 북한에서는 1956년 8월 소련과의 연안파가 김일성 개인 승배와 중공업 우선 정책을 비판하다가 대거 숙청(8월 종파사건)되었고, 1960년대에는 주체 사상을 유일 사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10.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국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원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에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 풍속은 각기 그 토질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구차하게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① 청연각이라는 도서관 겸 학문연구소를 설치하였다.
- ②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 ③ 개국공신들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 ④ 쌍기의 건의를 수용하여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 ⑤ 지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였다.

10. 정답 ⑤

[자료 분석]

자료는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일부 내용으로 이 주장을 받아들인 국왕은 고려 성종이다.

[정답 해설]

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중앙 통치 기구는 기존의 제도를 바탕으로 중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2성 6부로 정비하였으며, 지방에는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또한, 중앙의 국가감을 정비하고, 지방에는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예종 때에는 청연각, 보문각 등의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를 두었다.
- ② 성종 때에는 유교 정치사상이 강조되어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하였다.
- ③, ④ 광종에 대한 설명이다. 광종은 쌍기의 건의를 수용하여 과거제를 시행하였고, 개국공신들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11. (가), (나)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경종 원년(976) 11월 ..... 관품의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등급을 정하였다.  
 (나) 경기는 무릇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 ① (가) - 무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사라졌다.
- ② (가) - 전지와 시지를 함께 지급하였다.
- ③ (나) - 수신전, 홀양전 등이 마련되었다.
- ④ (나) -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⑤ (가), (나) - 전직 관리에게도 토지를 지급하였다.

11. 정답 ①

[자료 분석]

(가)는 경종 때 마련된 시정 전시과의 내용이다. 사료상에서는 관품의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관품과 인품을 모두 반영하였다.

(나)는 1391년 공양왕 때 마련된 과전법이다.

[정답 해설]

- ② 시정 전시과에서는 관직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전·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 ③ 과전법에서 과전은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홀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 ④ 과전은 관리에게 준 토지로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⑤ 시정 전시과와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한 제도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무신에 대한 차별대우가 시정된 것은 경정 전시과에 해당한다.

12. 임진왜란 당시의 사건들을 오래된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  
 ㄴ. 진주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되었다.  
 ㄷ.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ㄹ. 평양성을 일본군에게서 탈환하였다.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ㄷ - ㄹ - ㄴ
- ③ ㄱ - ㄹ - ㄷ - ㄴ
- ④ ㄴ - ㄱ - ㄹ - ㄷ
- ⑤ ㄴ - ㄹ - ㄱ - ㄷ

12. 정답 ③

[자료 분석]

[정답 해설]

ㄱ. 임진왜란 때인 1592년 5월에는 이순신이 이끈 수군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

ㄷ. 1593년 1월에는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ㄷ. 1593년 2월에는 권율과 관군, 백성이 합심하여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ㄴ. 1593년 6월에 있었던 2차 진주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다. 1593년 왜군은 6월부터 작전을 개시하여 함안·의령 등을 점령하고, 9만 명의 병력으로 진주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진주성에는 진주목사 서예원 휘하의 2,400명과 김천일, 최경희, 민여운 등이 이끄는 의병들이 포진하였다. 진주성에 집결하여 수성을 맡은 조선군의 전투력은 왜군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세였다. 조선군은 왜군의 파상 공격을 거듭하여 막아 내었지만,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 끝에 거의 모든 장병이 전사하고, 29일에 진주성은 함락되었다.

13. (가)의 인물이 주장했을 구호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선생의 생애	
연도	활동
1907	국채보상 단연동맹지회 설립
1918	상하이에서 신한 청년당 조직
1921	고려 공산당에 가입
1944	조선 건국 동맹 조직
1945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1946	좌우 합작 운동 주도
1947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피격·사망

- ① 한반도 분단을 막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 ② 나라 빛을 갠아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자!
- ③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을 쓰자!
- ④ 일제의 패망에 대비하여 건국을 준비하자!
- ⑤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보내 일제의 침략상을 알리자!

13. 정답 ③

[자료 분석]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여운형이다. 신한 청년당 조직, 조선 건국 동맹 조직,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좌우 합작 운동 주도 등의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여운형은 1947년 7월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19세의 극우파 청년에게 암살되었다.

[정답 해설]

- ①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제기된 단독 정부 수립 주장으로 분단의 위기가 높아졌다. 여운형과 김규식 등은 분단을 피하기 위해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하여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펼쳤다.
- ② 여운형은 1907년 경기도 양평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지회를 설립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 ④ 국내에서는 1944년 여운형을 비롯한 민족 지도자들이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좌·우익이 함께 참여한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하였다.
- ⑤ 신한 청년당의 조직을 주도한 여운형은 1919년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의 한국대표로 결정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③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조만식 등이다.

14.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숙종 이후 전국적으로 유통된 동전은 교환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여겨져 동전의 부족 현상인 전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② 지방민의 교역 장소로 장시가 정기적으로 열렸으며, 보부상들이 장시들을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③ 17세기 중엽 이후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개시가 열렸는데, 중강 개시, 회령 개시, 경원 개시, 동래 개시가 있었다.
- ④ 정조 때 신해통공을 통해 모든 시전이 가진 금난전권의 특권을 없애고 모든 상품의 자유로운 판매를 허용하였다.
- ⑤ 상업 자본가로 성장한 도매상인인 도고들은 자본을 바탕으로 상품을 독점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14. 정답 ④

[정답 해설]

- ① 조선 후기에 동전은 교환 수단일 뿐 아니라 재산 축적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동전의 발행량이 상당히 늘어났는데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시중에서 동전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는 지주나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 이용하였기 때문이었다.
- ② 조선 후기에는 지방민의 교역 장소로 장시가 정기적으로 열렸으며, 보부상들이 장시들을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한 행상으로서, 장날의 차이를 이용하여 일정 지역 안이나 전국적인 장시를 무대로 활동하였다.
- ③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17세기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왜관 개시를 통한 대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⑤ 조선 후기에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공인과 사상이 크게 활약하였는데, 이들 중 일부는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도고란 상품의 매점매석을 통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던 상인들을 뜻한다.

[오답 피하기]

- ④ 정조 때인 1791년에는 당시 좌의정이었던 채제공의 건의로 옥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자유로

은 상업 행위를 진작시켰다.

15. (가)와 (나) 시기 사이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이제부터 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개국 기년을 사용하도록 한다. 우리 조선이 건국된 해를 기준으로 삼아 연도를 표시하도록 하라.

(나) 다가오는 11월 17일을 양력 1월 1일로 새로 정할 것이다. 또 연호를 건양으로 다시 정할 것이니, 공사문서에 적용하도록 하라.

- ① 아관파천이 일어났다.
- ② 흥범 14조가 발표되었다.
- ③ 청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 ④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 ⑤ 동학농민군이 제2차 봉기를 일으켰다.

15. 정답 ②

[자료 분석]

(가) 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개국 기년을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제1차 갑오개혁 (1894년 6월 또는 7월 ~ 1894년 12월) 때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나) 연호를 건양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을미개혁((1895년 8월 ~1896년 2월)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②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은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제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1894년 12월, 고종은 종묘에서 자주 독립의 맹세를 하고 국정 개혁의 기본 강령인 흥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이범진, 이완용 등 친러파 세력은 친위대가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협의해 1896년 2월 마침내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시키는 아관파천을 단행하였다.
- ③ 청·일 전쟁이 시작된 것은 1차 갑오개혁 직전의 일이다.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정부를 제압한 일본은 풍도(豊島) 앞 바다에서 청국 함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1894. 6. 23).
- ④ 영국은 조·러 비밀 협약이 풍문으로 들려오자,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해밀턴 항이라 명명하고

1885년~1887년까지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 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1894. 6. 21)하고 내정 간섭을 강화함에 따라 동학 농민군은 1894년 9월에 재봉기하였다. → 국회 사무처에서는 ②번을 정답으로 확정했으나 출제 오류로 보인다. ⑤번 문항도 정답으로 옳은 지문이다.

16. 일제 시대 국학운동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채호는 역사를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민족주의 사학을 주장하였다.
- ② 백남운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입각하여 한국사의 발전 과정을 변증법적 역사발전 법칙에 따라 서술하였다.
- ③ 정인보는 ‘민족의 혼’을 강조하고, 저술을 통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두 요소를 ‘혼’과 ‘백’이라고 하였다.
- ④ 문일평은 ‘조선심’을 강조하고 조선심의 결정체로서 ‘조선글’을 주장하였다.
- ⑤ 실증 사학자들은 랑케 사학을 수용하여 실증주의를 표방하고 진단학회를 설립하였다.

16. 정답 ③

[자료 분석]

[정답 해설]

- ① 신채호는 『조선상고사』 서문에서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고 정의하였다.
- ② 백남운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입각하여 한국사의 발전 과정을 변증법적 역사발전 법칙에 따라 서술하였다. 그는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 ④ 문일평은 ‘조선심’, ‘조선사상’을 강조하였는데 ‘조선심’이란 가장 조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심의 결정체가 훈민정음으로 나타났다고 보아 세종을 조선심의 대표자로 보았으며, 실학자들의 실사구시 정신을 조선심의 재현으로 평가했다.
- ⑤ 이병도, 손진태 등 실증 사학자들은 랑케 사학을 수용하여 실증주의를 표방하고 1934년 진단학회를 설립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③ 박은식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두 요소를 ‘혼’과 ‘백’으로 보았다. 즉 국교·국학·국어·국사를 혼으로, 전곡·차승·성자·선함·기계를 백이라 하였다. 그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이 두 요소가 다 필요한 것이라 하고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백'보다는 정신적인 '훈'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민족정신인 '신' 또는 '훈'이 살아 있는 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7. 남북 관계에서 벌어진 다음 사건들을 오래된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가) 7·4 남북공동성명      (나) 남북적십자 1차 회담
- (다)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라) 북한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다) - (나) - (라)
- ③ (나) - (가) - (다) - (라)
- ④ (나) - (가) - (라) - (다)
- ⑤ (나) - (라) - (가) - (다)

17.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제3공화국) 때인 1972년 7월에 발표되었다.
- (나) 남북적십자 1차 회담은 박정희 정부(제3공화국) 때인 1972년 8월에 열렸다.
- (다)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은 유신 정부 때인 1976년 8월의 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사천교(돌아오지 않는 다리) 근방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유엔사 경비병들을 북한군 수십 명이 도끼 및 흉기로 구타, 살해한 사건이다.
- (라)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는 1993년 김영삼 정부 때의 사실이다.

1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라 총관 목극등(穆克登)이 황지를 받들고 변계를 조사한 결과 서쪽의 경계선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므로 분수령 상에 비를 세워 기록으로 삼는다.

- ① 조선 후기에 폐4군을 복구하고 건립하였다.
- ② 후일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 ③ 일본이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
- ④ 고려가 여진을 쫓아내고 국경을 정한 비석이다.
- ⑤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8. 정답 ②

[자료 분석]

자료는 조선 숙종 때(1712)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사실을 보여준다.

[정답 해설]

- ② 백두산 정계비에는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국경으로 삼는다(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 勒石爲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은 토문강을 송화강 상류로, 청은 두만강으로 달리 해석하여 훗날 간도 귀속 문제의 쟁점이 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4군은 조선 세종 때 서북 방향의 여진족을 막기 위해 압록강 상류에 설치한 국방상의 요지인 여연, 자성, 무창, 우예의 4군을 말한다. 1459년(세조 5)에 4군은 철폐되고, 이후 이 지방은 오랫동안 폐사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숙종 말년에는 소론의 영수 남구만의 노력에 의해 폐사군의 일부를 복설하여 압록강 연안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 ③ 임나일본부설은 왜(일본)가 4세기에 가야지역을 군사적으로 정벌해 임나일본부라는 통치기관을 설치하고 6세기 중엽까지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다는 학설로, 일본은 광개토태왕릉비의 신묘년(391) 기사 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이용하였다.
- ④ 조선 후기에 그린 그림인 척경입비도에는 윤관이 9성을 개척하고 비석을 세우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척경입비란 국경을 개척하고 비석을 세운다는 뜻으로 이 그림은 고려 윤관이 여진족을 물리친 것을 묘사한 것이다.
- ⑤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주장한 것은 조선 초기 태조 때의 일이다.

19. 다음과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임시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민족 운동 전선이 이념과 노선의 차이로 분열된 상황에서 임시정부는 자금난에 시달려, 독립운동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 안창호 등을 중심으로 민족유일당을 건설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무렵 만보산 사건과 만주 사변이 일어났다.

- ①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 ②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
- ③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였다.
- ④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 ⑤ 주석제를 채택하고 한국독립당을 처음 결성하였다.

19. 정답 ①

[자료 분석]

만보산 사건, 만주 사변 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한 임시 정부의 정책을 찾는 문제이다.

[정답 해설]

① 국민대표 회의(1923)가 성과 없이 끝난 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더욱이 만보산 사건(1931)으로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정이 나빠지면서 중국 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침체된 임시 정부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국민대표회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23년에 개최한 회의이다.
- ③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은 임시정부 초기의 활동이다.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은 1920년대 초 일제의 탄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④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된 것은 1919년의 일이다.
- ⑤ 임시정부는 1940년 5월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여 단결을 강화하였고, 1940년 10월에는 집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주석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주석(김구)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마련하였다.(임시정부 계열의 인사들이 한국독립당을 처음 결성한 것은 1930년의 일이나 수험 국사에서는

1940년 5월 결성된 한국독립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 다음 포고령을 내린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한다. 제2조 정부 등 모든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제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한다.

- ① 친일파 대다수를 처벌하였다.
- ②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③ 조선 인민 공화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 ④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였다.
- ⑤ 사회주의 세력과 연합하여 인민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 정답 ③

[자료 분석]

자료는 1945년 9월 9일 발표된 미군정 포고문(태평양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제1호)의 일부 내용이다. 따라서 미군정의 정책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해설]

③ 미군정은 조선 인민 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① 미군정은 조선 총독부의 관료와 경찰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친일파 처단을 외면하였다.
- ② 1945년 8월 15일에 결성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위원장에 여운형(중도 좌파), 부위원장을 안재홍(중도 우파)으로 하는 좌우 합작으로 결성되었다.
- ④ 미군정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다.
- 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남한 지역에 미군의 주둔이 다가오자, 미군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여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고, 각 지부를 인민 위원회로 전환하였다.